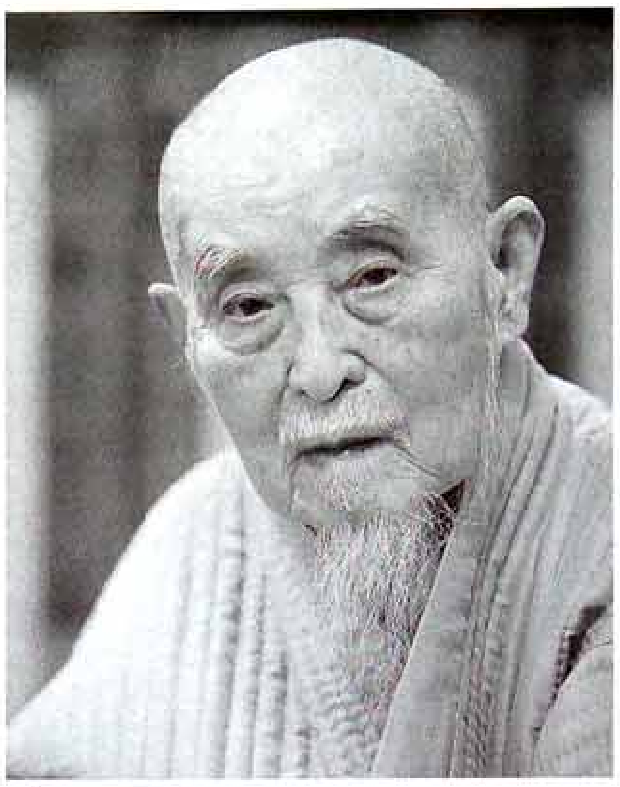
마음을 적셔주는 '영혼의 쉼터'

◇직지사는 잘 가꾼 정원같은 가람이다. 우람한 고목 사이사이로 배치된 전각들은 자연과 한몸을 이루며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된다.



황악산의 얼굴 **관응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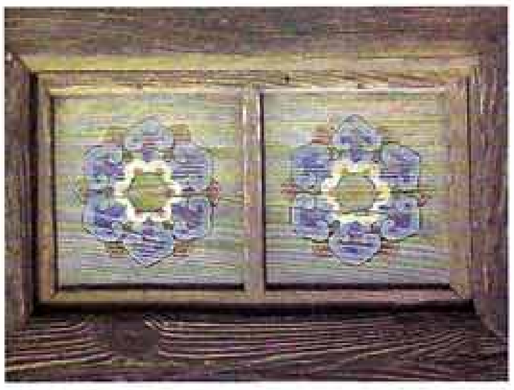
선·교 겸비 대강백…수많은 제자 길러

형형한 눈빛은 93세라는 세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수염 또한 투명할 정도로 하얀 색이니, 눈 덮인 황악산이 옮겨 앉은 듯하다.

1929년 상주 남장사에서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셨고, 예순 살에는 도봉산 천축사에서 6년간 무문관 수행을 하셨다. 선과 교를 겸비한 대강백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 내셨다.

그 절에 가면 — 황악산 직지사

정원같은 가람…역사 격랑속 부침
수련원, '리틀붓다' 年 4천명 배출



아란야(阿蘭若)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어(梵語) aranya를 음역한 것으로 '절'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잣거리에서 적당히 떨어져 스님들이 수행하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안이라는 것도 사물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벽면의 모자이크 벽화와 같이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으로 짜여진 우리네 삶을 성찰하는 데 '적당한' 거리는 더더욱 긴요한 것이겠지요. 출가가 도피의 수단이 아니듯이, 절 또한 적당히 현실에서 떨어져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은 (동네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봅니다.

누구나 가끔씩은,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마음' 연못 속에 물고기처럼 풀어 놓기 딱 좋은 절이 직지사입니다.

전각 자연과 잘 조화

직지사는 잘 가꾼 정원 같은 가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꿈은 인위적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고목에 둥지를 튼 새처럼 자연이 허락한 곳에만 전각을 배치한 사려깊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눈에 다 펼쳐 보이면서도 다소곳함과 은근함을 잃지 않는 것도, 그윽한 계곡과 우람한 수목들의 어우러짐이 베푼 은덕입니다.

직지사의 이런 아름다움은 황악산의 웅숭깊음에서 비롯됩니다. 동두렷 솟아올라 멋들어지게 접은 산주름을 우아하게 펼쳐 내린 곳에 자리잡음으로써, 산지에 있으면서도 평지 가람의 시원함과 평온함을 얻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발길을 허락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지킬 수 있음도 다 황악산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를 펼쳐 놓고 남한의 가운데 부분에 눈길을 주면 거기에 황악산이 있습니다. 황악산의 황(黃) 자가 곧 다섯 방위 중 가운데를 가리키는 색이니 직지사는 또한 이 땅의 심장에 해당하는 가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지사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곧장 마음으로 들어가야 함(直指人心)' 절입니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옛날 아도 화상이 선산의 도리사를 창건할 때, 황악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산에도 '큰 절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라에서는 아직 불교가 공인되기 전인 눌지왕 2년(418)의 일이니 직지사의 역사는 이 땅의 불교 역사와 고스란히 겹치는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직지사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고찰의 옛스러움을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창건 이후 직지사는 신라 선덕여왕 14년(645)에 자장 율사가 중창하였고, 고려시대에는 태조 19년(936)에 능여 대사가 크게 중창하여 동방제일도량으로 이름을 떨치며 수많은 고승 대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조선조에 들어서도 여러 차례 중수가 있었으나 임진왜란의 병화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다시 선조 25년(1602)부터 70년에 걸쳐 다시 일으켰으나 순조 5년(1805)부터 기울기 시작하여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1966년부터 대규모의 중창불사를 벌여 전각의 수만도 65동에 이르는 대가람으로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영조 11년(1735)에 중건한 대웅전을 비롯하여 300여 평 규모의 천불선원, 천불 가운데 고추를 드러낸 탄생불과 첫 눈을 맞추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을 간직한 비로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지사는 사명당 유정(1684~1752) 스님의 출가 도량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직지사는 분명 새로운 절입니다. 하지만 가람의 노송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 정신 만큼은 변함없는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르름은 내일의 한국 불교에 끝없는 생명력을 불어넣을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사명당 출가도량

직지사는 열린 도량입니다. 가람의 외양도 그러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신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종교를 불문하고 영혼의 휴식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숲 속의 빈터 같은 여백을 만들어 주는 '수련원'은 한 해 4천여 명 정도의 '리틀 붓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안거에 들어간 천불선원에서는 25명의 수좌들이 황악산과 함께 화두 삼매에 빠져 있습니다. 먼발치에서라도 그 기운을 느껴볼 양으로, 능여계곡이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는 천불선원 곁에 서 봅니다.

풍경 소리를 대신한 계곡 물 소리, 머리 속 찌든 때를 말갛게 씻어 주는 것 같습니다. 능여 대사의 장군죽비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